



양 홍 서

1981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96 : 치의학 박사

1989 : 미국 Maryland 치과대학 방문교수

1998 : 미국 N. Carolina 치과대학 방문교수

현 재 :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교수

전치부의 치아 상실이 있을 때, 고정성 치과 보철물에 의한 수복은 오랜 역사를 가지며 오늘날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철 치료 술식이다. 그러나 고정성 보철물로 성공적인 환자의 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기계적 원리에 관한 지식과 정확한 진단에 기초를 둔 최선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전치부의 고정성 보철물은 저작 및 발음 기능의 회복 못지 않게 심미적 요구가 높은 부위이기 때문에 전치부 심미성에 관한 지식과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다른 치과 영역과 마찬가지로 치과재료 및 술식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왔고, 고정성 보철재료로 전통적인 금합금 이외에 다양한 고강도 도재 및 접착성 시멘트의 도입으로 접착성 고정성 가공의치 및 전부도재 고정성 가공의치들이 전통적인 PFM(금속-도재) 가공의치의 대체 술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치주 조직이 약화된 지대치나 결손부 무치악 치조제를 가진 경우에는 치주 보철학적인 고려와 심미적 치조제 증식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multiple unit의 고정성 가공의치는 가공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가공상의 오차와 구강 내에서 기능시 발생하는 기계 역학적 현상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결손치를 수복할 때 무치악의 양쪽 끝에 있는 지대치들이 건전하고 치궁이 직선을 이룬다면 유지장치는 잘 설계될 수 있고 오랫동안 환자에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지대치는 원래 자신에 가해지는 교합력에 상실치가 가하는 힘을 더 받기 때문에 일정한 교합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임상적으로 Ante's law라는 개념이 가공치 상실부의 길이에 저항할 지대치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과부하보다는 치열궁에서의 지렛대 작용과 비틀림이 multiple 가공의치의 실패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지고 있으며, 치태 제거관리를 잘 하는 환자는 매우 낮은 실패율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재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몇 가지의 생역학적 고려사항과 해결책을 다루며, PFM 가공의치, 레진접착성 가공의치 및 심미재료로 도재나 레진만을 사용하는 가공의치의 적응증과 장단점들을 비교하고자 한다.